

2006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교육에
대한 교사의 요구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양 홍 래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교육에 대한 교사의 요구 분석

A study of the Need of Teachers for the Vocational
Education of School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양 홍 래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교육에 대한 교사의 요구 분석

지도교수 김 남 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양 홍 래

양홍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5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 목차	iii
그림 목차	v
ABSTRACT	v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4
4. 용어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5
1. 정인지체인의 특성	5
2. 정인지체인의 직업교육	7
3. 정인지체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	11
4. 직업교육의 지원체제 및 직업재활과 취업형태	14
5. 선행 연구 고찰	19

Ⅲ. 연구 방법	22
1. 연구 대상	22
2. 연구 도구	24
3. 연구 절차	25
4. 자료 처리	26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27
1. 직업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교사의 요구	27
2. 직업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교사의 요구	41
3. 취업과 진로에 대한 교사의 요구	44
Ⅴ. 결론 및 제언	52
1. 결론	52
2. 제언	55
참고문헌	56
부 록	58

표 목 차

〈표 II-1〉 정신지체인의 수준별 특성	6
〈표 II-2〉 특수학교 교육과정 각론의 구성 범위	12
〈표 II-3〉 선행 연구 분석표	19
〈표 III-1〉 연구 대상의 실태	22
〈표 III-2〉 설문지 구성 내용	24
〈표 IV-1〉 직업교육의 목표 설정	27
〈표 IV-2〉 중도 정신지체 학생의 직업교육 목표 설정	28
〈표 IV-3〉 직업교육과정 개발	29
〈표 IV-4〉 중도 정신지체학생의 직업교육과정 개발	30
〈표 IV-5〉 직업교육 종목 선정	31
〈표 IV-6〉 직업담당 교사 임용	31
〈표 IV-7〉 직업교육 시작 시기	32
〈표 IV-8〉 직업교육 실시 방법	33
〈표 IV-9〉 직업교육 시간	34
〈표 IV-10〉 경도 정신지체 학생 직업교육 시간	35
〈표 IV-11〉 적정 학생 수	35
〈표 IV-12〉 직업지도 부서 배치	36
〈표 IV-13〉 직업지도 부서 배치(성별·직업교육경력별)	36
〈표 IV-14〉 직업교육 평가 방법	37
〈표 IV-15〉 직업교육 평가 시기	38
〈표 IV-16〉 직업교육 평가 시기(직업교육경력별)	38

〈표 IV-17〉	직업교과 수준 선택 방법	39
〈표 IV-18〉	직업교과 수준 선택 방법(직업교육경력별)	39
〈표 IV-19〉	직업교육과정 개선점	40
〈표 IV-20〉	산업체 연계 담당	41
〈표 IV-21〉	관련 인사 활용 유형	42
〈표 IV-22〉	관련 인사 활용 방법	42
〈표 IV-23〉	관련 인사 활용 방법(직업교육경력별)	43
〈표 IV-24〉	직업교육 시설(다중응답)	43
〈표 IV-25〉	졸업 후 진로	45
〈표 IV-26〉	직업교육 종목의 영향	46
〈표 IV-27〉	직업교육 종목의 영향 (직업교육경력별)	46
〈표 IV-28〉	직업 선택 결정	47
〈표 IV-29〉	직업 선택 결정(성별)	47
〈표 IV-30〉	바람직한 취업 알선 방법	48
〈표 IV-31〉	취업시 어려운 점	49
〈표 IV-32〉	취업시 어려운 점(성별)	49
〈표 IV-33〉	취업시 가정에 요구되는 사항	50
〈표 IV-34〉	취업시 사회에 요구되는 사항	50
〈표 IV-35〉	취업시 학교에 요구되는 사항	51

그림 목차

〈그림 IV-1〉	직업교육의 목표 설정	28
〈그림 IV-2〉	직업교육과정 개발	29
〈그림 IV-3〉	직업교육 시작 시기	32
〈그림 IV-4〉	직업교육 시간	34
〈그림 IV-5〉	직업교육 시설	44
〈그림 IV-6〉	졸업 후 진로	45

ABSTRACT

A study of the Need of Teachers for the Vocational Education of School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by Hong-Rae Yang

Advisor : Prof. Nam-Soon Kim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vocational education for mentally retarded students through analyzing teachers' needs in special schools for mental retard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tarts from the following questions: The First is "what is the teachers' needs on the contents and curriculum implementations in vocational education?" Secondly, "what is teachers' demands on the support systems?" And the third is "what is the teachers' needs on the employment and directions of after their students graduation?"

To find out answers to these questions, 133 teachers among special schools for mental retardation in Gwangju and Junnam area were sampled and analyzed their responses(SPSS PC program package was used for analyzing). The consequence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eachers responded that two kinds of curriculums should be developed separately because degrees of students' mental retardation are different. For the slightly retarded students, curriculums to cultivate abilities to obtain actual vocational

techniques and skills for their later social adaptation should be taken as a long-term goal. And for the moderately retarded students, curriculums to cultivate abilities to solve realistic problems for their basic learning abilities as a long-term object. They also answered that choices of proper vocation lists for their students are possible, it should be made by consultation with school authorities and local private companies. And for this, they thought, certain teachers specialized in vocational education should be employed.

Secondly, in terms of vocationally educational implementation, teachers responded that it must be started from the middle school age. And teachers thought it is more desirable to teach theories and basic techniques from school classes, but actual and expert skills should be supported by local private companies. Teachers feel the vocational class-hours are enough, now, but they feel four to seven students are effective per each vocational class. For above improvements, they demanded on supplement to appropriate programs and proper vocation lists for their students to get actual jobs.

Thirdly, in terms of support systems, teachers hoped relationship with local private companies and their schools should be organized not only by school authorities but also by the government or the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And they also hoped to establish certain exchanging systems or programs with personnels of private companies.

And the fourth, in terms of prompting employment and directions for their students after graduation, teachers responded it is needed for slightly retarded students to get proper jobs, and for moderately retarded students are to have more opportunities to further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Most teachers wanted their students' employment should be through practical field training at private companies or factories.

As a conclusion, I would like to propose followings, based on consequences of this study:

First, concrete programs which could applied to various degrees of the disabled should be developed. And also, many concrete case studies on the vocational education should be researched. Second, construction of proper environment and repletion of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vocational education are needed. And further, discussions about plans to utilize established facilities more effectively or to use facilities outside schools. And the third, information systems could be help from related personnels and linking systems with local private companies' supports are established for the effective vocational education. In addition, local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must provide more positive suppor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세상의 출발선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보호를 받으며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쌓아간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가정이라는 공간을 조금씩 벗어나 또래들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본격적인 학습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나간다. 학교생활을 벗어나 사회로 들어서게 되면 사회인으로서의 더 많은 능력들이 요구되고, 인간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독립생활을 유지하며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러한 삶의 과정을 거치며 그 속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제한된 능력과 환경으로 인해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눈 뜨고 일어나면 할 일이 있어서 오라는 곳 없이 무작정 집을 나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장애인들의 희망 속에는 비장애인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비장애인 취업보다 6배나 힘들다는 장애인 취업의 현실이 담겨 있다.

인간의 생활에서 직업이란 삶의 질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직업은 생활을 유지시키는 경제적 수단이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직업의 유무와 그 직업에서 느끼는 만족도에 따라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본성은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인데,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사회에서 직업 선택의 기회를 갖고 보다 좋은 노동 조건에서 일하며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허석, 2004). 그리고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은 단순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만

약에 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생활은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 Bitter(1979)는 장애아에게 직업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을 때 가정이나 사회에서 비사회적인 존재가 될 것이며, 나아가 반사회적인 존재가 되어 사회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은 장애학생이 남에게 의존하여 살아갈 수 없도록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부담을 덜어 주게 되고, 가족 및 사회 성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남에게 떳떳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인들이 갖고 있는 생산적 능력을 우리 사회가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제 활동의 활성화 및 사회복지적인 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이승미, 2001).

현대의 고도화된 사회구조는 인간의 인지적, 행동적인 전문적 기술과 숙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정보화, 과학화 사회는 지적·기술적·전문적 일의 기능 발달을 요구함으로써 장애인에게는 접근하기 힘든 일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으로 복잡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자립하기란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이경희, 2004).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로상황은 전체 2,012명 중에서 대부분이 전공과에 들어간 진학자 수를 제외하면 취업자수가 547명(약 27%)이었으며, 2001년에는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1,970명중에서 진학자(656명)와 적절한 진로를 개발하지 못하고 졸업한 815명을 제외한 취업자수가 499명(25.33%)으로 취업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2학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1,873명 중에서 취업을 한 학생의 수는 512명(27.3%)으로 2001학년도에 비해 취업률이 2.0%증가하였으나,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중 취업 및 진학을 하지 못하고 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학생은 전체 졸업의 39.5%(7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2002, 2003).

우리나라의 많은 장애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가정이나 시설로 돌

아가 의존적이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지적능력과 적응기술에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 학생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정신지체 학생의 취업률은 1990년 44.4%에서 1994년 21.9%, 1998년 18.2%, 2002년 19.9%(277명)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03). 이는 정신지체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과정이 정신지체아에게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족함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정승욱(1994)은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문제점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내용과 설비·재정적 지원의 부족, 산학협동 체제의 미비를, 이승미(2001)는 특수학교에서 설치하고 있는 직종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능력과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각 직업교육 직종에 연계시키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성욱(1996)은 정신지체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취업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받은 것과 무관한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고 했으며, 조인수(2000)는 직업교육 시설의 미비, 전문교사의 부족, 고용현장과의 연계 부족, 현장실습 부족, 비현실적인 직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스스로 나아가는 능력이 미흡한 정신지체아의 직업교육은 사회자립을 위한 기초요건이며, 미래생활을 안정되게 할 중요한 핵심요소이고, 직업적 자립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찾도록 하는 본질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지체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 직업교육 지원체제, 취업과 진로에 대한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여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직업교육의 개선점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지체 학생의 실제적인 직업교육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정신지체특수학교 중·고등부(전공과 포함) 교사의 요구를 밝히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교사의 요구는 어떠한가?

둘째, 직업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교사의 요구는 어떠한가?

셋째, 취업과 진로에 대한 교사의 요구는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이 용이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정인지체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조사 방법으로 설문지에 의존함으로써 주로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 용어의 정의

1) 직업교육

직업을 통해 사회적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흥미·능력에 알맞은 일을 택하여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개발하고 배우며 훈련하는 계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2) 경도, 중도

일반적으로 정인지체는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중도(severe), 최중도(profound)로 분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 정도를 경도와 중등도 이상(중등도, 중도, 최중도) 정인지체 두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중등도 이상의 정인지체는 중도 정인지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정신지체인의 특성

1) 정신지체의 정의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신지체에 대한 정의는 미국정신지체협회(AAMR, America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의 정의이다. 미국정신지체협회는 정신지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신지체는 지적기능과 개념적·실제적·사회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 모두에서의 유의미한 장애로 특징지워진다. 이 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된다.” 즉, 정신지체는 평균이하인 일반적 지적기능, 적응행동의 결함, 그리고 발달기 동안에 출현한다는 3개의 중요한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일반 지적 기능수행은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받은 지능지수(IQ)로 정의되며, 일반 지적 기능 수행이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다는 것은 IQ가 70 또는 그 이하(표준편차 약-2이하)됨을 의미하고, 지능검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IQ의 사정에서 약 5점의 측정 오차가 발생하므로 적응행동에 유의한 한계가 있다. 김승국(1998)은 IQ가 70~75인 사람은 정신지체로 진단될 수 있고, 적응 기능수행에 유의한 결함이 없다면 IQ가 70이하라도 정신지체로 진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적응행동의 결함이란 개인이 자기의 연령 수준 및 문화집단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성숙, 학습, 개인적 독립 또는 사회적 책임에 따른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능력에 있어서 유의한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발달 기간 중의 발현으로 정신지체는 보통 18세 이전에 나타난다. 그러나 발달기 이후에 뇌손상을 입어 지적능력과 적응능력의 결함을 갖게 된 사람은 정신지체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정신지체인의 수준별 특성

일반적으로 정신지체는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중도(severe), 최중도(profound)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신지체인의 수준별 특성은 다음 <표 II-1>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II- 1> 정신지체인의 수준별 특성

분류	수준(IQ)		신체적	교육적	직업적
	AAMR (1983)	DSM- III (1980)			
경도 (mild)	50/55 ~70	50 ~70	신체발달이 거의 정 상적이며, 의사소통 과 신체기능에 제한 도 거의 없음	직업생활(비전문영 역)에 필요한 수준 (초3년 이상)의 학 습이 가능함	준기능 또는 단순 직 분야에 일반 취업이 가능함
중등도 (moderate)	35/40 ~ 50/55	35 ~49	신체발달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의 사소통과 신체기능 에 약간의 제한이 있음	일상생활 기능에 필요한 수준의 학 습이 가능함	보호 작업장에서 반독립적으로 작 업이 가능하며, 일반 취업이 가능 한 경우도 있음
중도 (severe)	20/25 ~ 35/40	20 ~34	신체 기능상 제한이 많으며, 운동기능과 언어발달이 지체됨	극히 초보적인 수 준의 학습이 가능 하며, 일상생활기 능의 많은 부분을 타인의 도움을 받 아야 함	대부분의 경우 보 호된 환경에서 작 업이 행해지나 직 업의 의미는 없고 보호 작업장 수준 의 직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최중도 (profound)	20/ 25이하~	20 이하	신체기능이 거의 제 한되어 있으며, 의 사소통과 사회적 관 계가 거의 이루어지 지 않음	일상생활을 전적 으로 타인의 도움 에 의존하며, 교육 이 거의 불가능함	보호수용 대상자 로 작업이 거의 불가능함

자료 : 미국정신의학협회(1980)

경도(mild) 정신지체는 전체 정신지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신체 발달이 거의 정상적이며, 의사소통과 신체 기능에 제한이 없다. 6학년 수준의 학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성인기에 최소한의 사회적 기술과 직업적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 중등도(moderate) 정신지체는 정신지체인의 약 10%을 차지하고 이들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 하에 사회적·직업적 훈련을 받아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이하의 지적 수준을 가짐으로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관리자의 감독 하에 지역사회 생활에는 적용할 수 있다. 직업적 측면에서는 보호 작업장 등에서 비숙련 작업이나 반숙련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severe) 정신지체는 정신지체인의 약 3~4%를 차지한다. 학습의 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초보적인 학습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은 보호된 환경에서 아주 단순한 직업만이 가능하며, 대다수는 집단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사회생활을 한다. 최중도(profound) 정신지체는 정신지체인들 가운데 1~2%를 차지한다. 전체 정신지체 아동의 출현율은 지능을 준거로 삼아 본다면 인구의 약 2.27%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고 교육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독립생활을 할 수 있다.

2. 정신지체인의 직업교육

1) 직업교육의 개념

직업이란 용어는 “사회적 책무로써 개인이 맡아야 하는 직무성과 생계유지를 위하여나 과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동행위의 이중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이무근, 1999). 직업교육을 광의로 정의할 경우에는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현재의 직무를 유지 개선하기 위한 형식 또는 비형식의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업교육의 정의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김영환(1993)은 직업교육은 단순히 직업기능의 향상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태도, 이해, 습관, 판단 등을 개발하여 배우고 훈련하는 계획적·체계적 활동을 말한다고 하였다. 구본권(2000)은 개인의 제 특성과 취업기회에의 관련을 고려하면서 직업선택상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계발과 만족을 얻기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교육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인수(1999)는 직업교육을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택하여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판단 등을 개발하고 이런 능력을 계속 개선할 수 있게 지도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계에서는 직업교육, 진로교육 및 전환교육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며, 각각 상이한 측면들이 강조되기도 한다.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그리고 전환교육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 관련된 요소를 포함한 협의의 개념과 포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교육은 장애학생의 졸업 후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직업의 기능적 능력과 더불어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까지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진로교육은 장애학생의 졸업 후 자신의 독립적인 삶과 연관된 진로의 탐색과 선택, 그리고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전환교육은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학교과정뿐만 아니라 학교이후 활동으로의 이동을 증진하는 결과중심의 일련의 지원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고등교육, 직업훈련, 통합고용(지원고용 포함), 지속적인 성인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생활, 지역사회 참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직업교육은 진로교육에 진로교육은 전환교육의 일정한 부분집합이고 직업교육훈련은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그리고 전환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장애학생들에게 지도하는 지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신지체인의 직업적 특성

정신지체장애인은 여러 가지로 취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취업활동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만큼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지체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강병호, 2003).

첫째,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다. 정신지체인들은 인지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복잡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지식의 적용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직무 수행능력의 부족은 다음과 같은 현상에서도 확인된다. 정신지체인은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비장애인에 비하여 기술습득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습득한 기술에 대한 망각비율이 높고, 망각된 기술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며, 학습의 전이 및 일반화의 정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배운 지식을 종합하여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둘째, 대인관계 등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진다. 정신지체인이 직업현장에서 적응능력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 기능의 저하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응능력의 결함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주의산만, 자해행위, 공격적 행동, 부적절한 대인관계 등의 문제가 정신지체인의 직업적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란 것이다. 정신지체 고등부 졸업생의 전환과정 결과를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지체인의 이직율이 다른 장애인보다 높으며, 이직원인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비하여 일이 너무 어려워 이직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료나 상사와의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장애가 너무 심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곽준기, 1995). 이러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진 정신지체인들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닌 심리적 학업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도에 임해야 한다. 정신지체인들은 지적 능력, 기억력, 언어, 동기,

자아개념 등의 영역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 근로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3) 정신지체학생 직업교육의 의의

정신지체인이 학교를 졸업해서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들의 부모 뿐 만 아니라 교육관계자, 사회의 책임이며 요구이기도 하다. 직업활동의 성패는 사회에 생산적인 일을 하여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신지체인의 직업교육의 의의를 살펴보면 직업능력, 직업자질, 사회 참여, 치료교육 등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박혜정·윤점룡, 1982).

첫째, 정신지체인에 대한 직업교육은 직업 능력교육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직업교육은 우선 직업인으로서의 기능 교육을 의미하는데, 개인의 적성과 기술성을 참작하여 수행 능력 범위 내에서 지도를 계속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숙련, 반숙련의 직업기능을 습득시킬 수 있다.

둘째, 그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직업 자질교육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정신지체인들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의 적응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인으로서의 인성적 자질과 직업에 대한 보람, 직장의 규칙이나 지도자의 지시에 따르는 준법성, 책임감, 인내심, 협동성, 안전관리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함양시켜야 한다.

셋째, 사회참여 교육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정신지체인은 지적능력이 부족하지만 생산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참여는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그들이 가진 능력을 십분 활용하고 생산활동에 참여케 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적인 생활 자립 능력이 앞서야 하겠다.

넷째, 치료교육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정신지체인은 지적 능력 결함으로 무모한 교과학습은 결과적으로 실패감과 열등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작업학습이 된다면 흥미를 느끼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도 있어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치료적 효과와 신체적 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적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신지체인의 직업교육은 보다 강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하며 정신지체아가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3.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

1) 제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직업교과

제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정신연령 6세 이하의 발달지체 아동(정신지체, 정서장애)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생활중심의 기본적 과정으로 깔고 있으면서, 그 위에 감각장애와 신체장애 아동을 위한 10년 간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2~3학년의 과정에 다양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의 특수한 장애조건을 지원보상하기 위한 치료교육 활동 영역이 제 3의 교육과정 활동영역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특수학교 교육과정 각론의 구성 범위

치료교육 (8개 교과)	선택중심 교육과정*(90과목)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과 (8교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10개 교과)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발 교과목 : 시각장애-2과목 청각장애-2과목 지체부자유-1과목	
기본 교육 과정(7개 교과)		

* 일반 학교 교육 과정의 각론

자료 : 교육부(1999). 특수학교교육과정 해설(Ⅰ)-총론, p. 36.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의 구성내용은 기본교육과정의 직업교과(①사회생활, ②직업준비, ③작업기능)과 고등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직업교과(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 전자조립, 제과·제빵, 정보처리, 상업디자인, 이료) 8개와 전문교과(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한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국제에 관한 교과)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1999).

2) 직업교과 교육의 성격

정신지체·정서장애 학교 직업과는 장애학생들이 학교교육을 마친 후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생활 기능을 익히고, 나아가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기초적인 직업기능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직업과는 특정교과 영역에 편중된 운영을 예방하고, 기초학습 및 일상생활기능 학습시간을 확대하는 대신 직업교육 시간을 중학부 1,156~1,224시간 중 408~510시간(약 40%전후), 고등부 1,156~1,224 중 476~544시간(약 45%전후)에 비해 축소하여 중학부에서 연간 1,088~1,156시간의 수업 중 340시간(29.41~31.25%), 고등부에서 연간 1,156~1,224시간의

수업 중 408시간(33.33~35.29%)이 배당하였으며, 기본교육과정의 다른 교과와는 달리 중학부와 고등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직업과는 중학부와 고등부 과정을 마친 후 사회에서의 생활을 순조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전환교육의 관점에 기초하여 실시된다.

직업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박희찬, 1999).

첫째,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경험을 다양하게 갖도록 하여 장애 성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는 기능적 생활 교과이다.

둘째,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기능의 습득과 함께 직업태도 및 습관 등 실제적인 내용과 교육활동을 중시하는 기술교과이다.

셋째, 다른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학습된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종합교과이다.

넷째, 학교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해 주는 전환교육교과이다.

3) 직업교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지체·정서장애 학교 직업과는 장애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 사회기술, 직업준비 기능과 태도, 직업기능을 길러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 맡은 분야의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 총괄목표는 다음의 다섯가지 하위목표로 세분화된다(김정권 외 2인, 1999).

첫째, 직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회생활기능을 갖추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과 관련된 생활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직업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학습기능과 신체기능을 익혀 직업준비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직장생활에서의 규칙준수, 원만한 개인관계 유지, 적절한 작업습관 형

성을 통하여 직무에 대한 기본 소양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직업생활과 관련된 표본 작업기능을 익히고 현장실습을 통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맡은 분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한다.

다섯째, 전환교육의 결과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알맞은 주거생활, 직업생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직업교과의 목표로 하고 정신지체·정서장애를 위한 직업과 교과서는 중학부와 고등부 단계의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무학년제 학습자료가 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직업과의 과제나 인식하기, 실천하기, 적용하기라는 단계로 구성된 학습활동들은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도록 선택해서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재량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 내용체계는 제1권 직업생활, 제2권 직업준비, 제3권 직업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생활은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영역, 직업준비는 학교생활과 지역사회생활영역 그리고 직업기능은 경제생활과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다. 각 권의 생활영역에서 하위영역을 정하고, 그 하위영역에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4. 직업교육의 지원체제 및 직업재활과 취업형태

1) 직업교육의 지원체제

직업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사들을 활용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수업,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이를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배치가 이루어져 한다. 또한 직업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인 시설 설비와 관련해서 조인수(2000)는 직업교육실은 간단한 직업 전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실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좀더 구체적인 교구·기자재를 들여다가 전문적인 직종훈련의 장으

로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하며, 직업교육실은 몇 영역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강병호(2003)는 직업훈련시설이나 활동장소를 교내·외의 시설을 실습과 현장학습, 그리고 취업활동 위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부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적응훈련, 그리고 직업탐색을 위한 관련시설 활용이나 기관 방문기회를 확대하고, 중학부에서는 교내 모의작업장이나 기관과 연계한 실습실을 활용하고, 고등부와 전공과에서는 지역사회업체와 취업알선기관 등 취업현장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의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는 가정 및 타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직업교육훈련에서 산업체와 학교간의 산학협동은 학교가 직업사회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과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이 직업세계를 준비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직업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부모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자녀들도 건전한 직업의식과 직업적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충실함과 동시에 학교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모의 그릇된 기대와 지나친 관심은 장애학생의 직업배치와 고용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지나치게 자녀를 과소평가하여 모든 것을 대신해 주거나 평생 보호자로 자임하는 행동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아울러 대부분 부모들의 지나친 학력주의 욕구로 인해 장애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도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자녀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모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특성이나 각종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교와 협력하여 자녀의 직업적성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가정과 학교의 협력이외에 장애인 직업재활 및 전환과 관련된 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정보만을 교환하는 과정이 아

나라, 정보·인력·재정 및 책임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협력은 기관간의 수평적인 협력은 물론, 기관간 교차적인 협력도 요구하며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간 협력도 요구한다.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데,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직업교육훈련 계획 수립과 동시에 이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선학교에서도 관리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직업재활 시설

1999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강화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보호고용, 취업알선 기관 간 연계, 취업 후 적응지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등의 과정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고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직업능력 평가, 직업재활상담, 직업훈련, 직무지도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할 직업재활 전문요원을 양성·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직업재활 체계와 서비스 안에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재활실시기관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단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동시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이다.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의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48조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 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 목적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으로서의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8조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재활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재활실시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 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직무배치, 사후지도 등으로 볼 수 있다. 직업평가가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1995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인의 60% 이하가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여 교육, 직업, 사회재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초기 사정의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작업표본 검사나 현장평가의 경우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설치해서 심도 있는 평가와 도구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유점화, 2003).

장애인 단체는 지역 사회의 장애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선 전달 창구이기 때문에 직업 상담, 직무 개발 및 배치, 취업 알선, 사후 지도, 효율적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인적 요소가 모여 만들어진 모임이기에 복지관이나 센터에 비해 정례화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직업재활센터처럼 직업재활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열악한 상황이다. 환경 여건 또한 직업재활센터나 직업재활시설처럼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보다는 대부분 임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3) 정신지체인의 취업형태

정신지체인을 위한 취업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어져

야 하지만 장애의 상태,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라 취업의 형태는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을, 노동부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는 취업을,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쟁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작업장 취업을 관할하고 있다.

정신지체인의 장애정도와 직업적 능력에 따른 고용의 형태와 배치는 다음과 같다(박창석, 2002).

첫째, 직업활동센터는 중증의 정신지체인으로 일반 작업장에서의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라 볼 수 있다. 정신지체인에게 작업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임금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득을 위한 고용이라기보다 생활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운영된다.

둘째, 보호작업장은 경쟁고용 시장에서 분리되어 통제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작업장으로 정신지체인에게 생산적인 작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제공함과 동시에 작업을 통하여 작업습관을 익히고, 직업훈련을 통하여 경쟁고용을 이루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재활기관과 작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원고용은 장애인이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그에 따른 임금을 받으며, 직무수행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직무지도원을 통한 지원을 받는 형태의 취업이다. 지원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은 사정과 평가, 지속적인 지원서비스 그리고 체계적 관리를 포함한다. 지원고용은 탈시설 중심의 통합고용의 형태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업체의 개발, 그에 따른 직무분석, 적절한 대상장애인의 선정 그리고 취업 및 지원의 과정을 거친다.

넷째, 경쟁고용은 일반 사업체에 정상인과 동등하게 취업하는 형태이다. 반숙련 혹은 비숙련의 하위직에 취업하게 된다. 경도 정신지체인에게 가능한 고용형태로 직업을 찾을 때와 초기 적응단계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경도 정신지체인이 일반 사업장에 고용되는 경우 가장 주의할 점은 대인관계 부분이다. 시간제 고용, 전일제 고용 등이 있다.

5.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다음 <표 II-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3> 선행 연구 분석표

년도	연구자	주제	결과	시사점
1994	정승옥	정신지체학교 직업지도교사의 진로교육 인식 과 실태분석	직업종목이 교사의 의 견에 따라 결정되고, 4~7종으로 한정되어 있음	정신지체인의 고용문 제에 대해 보다 낙관 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제기
2002	박창석	정신지체아 직 업진로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 사의 요구 분석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 이 낮을수록 학교나 국 가에 의존하려는 경향 보임	실제적인 직업교육을 해 부모와 교사의 직 업교육에 대한 변인별 요구 밝힘
2002	이광숙	정신지체학생 직업교육 관련 논문 분석 연구	훈련가능 및 중증·중 복 아동에 대한 연구와 현장실습 위주의 질적 인 논문들이 나와야 함	정신지체학생의 직업 교육관련 학위논문을 분석하여 직업교육 연구의 흐름에 대한 특성을 밝힘
2002	안금희	중·고등학교 정신지체학생 의 직업 흥미 조사 연구	성별 선호직종은 남학 생은 자동차·원예·동 물사육, 여학생은 간병 ·가사·식당 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직업재활 전 과정에 학생들의 직업적 흥 미조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

2002	유효진	정신지체특수학교 중학부 직업교육 실태와 부모·교사의 요구	직업교사 자격에 대해 교사는 일반 실과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부모는 직업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특수교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봄	직업교과 관련 특수교사의 배치와 직업교육 관련 담당 교사의 연수 기회 확대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필요함
2003	안해령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직업교과교육의 실태 및 교사들의 요구에 관한 연구	실제 교육내용면에서 제 5차 교육과정 직업교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직업교과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필요함
2003	우상현	정신지체특수학교 직업재활교육의 실태조사	교육가능 정신지체아는 직업수행을 위한 기능교육에, 훈련가능 정신지체아는 생활적응을 위한 자립교육에 역점을 둠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강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취업이 저조함을 지적함
2003	박천재	중학교 특수학급 진로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특수학급 주당 직업교과 수업시수(5시간 미만)가 적고, 직업교과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 적음	전문직업교사가 없는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시설이나 인력이 있는 산업체와의 연계한 직업교육 필요
2004	이경희	정신지체특수학교 고등부 직업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고등부 직업교육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 교육시설환경, 현장실습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직업교육부장의 부적절한 배치와 경험부족이 체계적인 직업교육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봄

2004	김진영	정신지체학교 고등부 직업전 환교육의 실태	개별화 전환교육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학교가 많은 것으로 보아 현장 에서 체계적이고 계획 적인 전환교육이 잘 이 루어지지 않는 것을 나 타냄	전환교육에 대한 체계 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건 확보 강조
2004	허석	정신지체특수학 교 고등부의 산 업체 현장실습 에 관한 연구	현재보다 시기와 횟수 에서 더 강화된 형태로 실시되어야 하고, 실습 업체 개발에 있어 상호 협력을 통한 역할분담 이 필요함	산업체 현장실습은 직 업교육의 내실화와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해 크게 비중을 두어야 할 부분임을 강조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알아본 현재 특수학교의 실태를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지역 특수교사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인지체특수학교 교사의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밝히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조사대상, 조사도구, 연구절차,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정인지체특수학교 직업교육에 대한 교사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정인지체 특수학교 7개교(공립4, 사립3)의 중·고등부 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135명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하였다. 응답내용이 불충실한 2부를 제외한 133명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실태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대상의 실태

구 분	세부사항	응답자 수(명)	비율(%)
성 별	남	47	35.3
	여	86	64.7
연 령	20대	30	22.6
	30대	63	47.4
	40대	31	23.3
	50대 이상	9	6.8
담당학급	중학부	55	41.4
	고등부	78	58.6
소지자격	특수교사	60	45.1
	일반교사	21	15.8
	특수교사+일반교사	52	39.1

특수교육 경력	5년 미만	65	48.9
	5~10년 미만	36	27.1
	10~15년 미만	21	15.8
	15년 이상	11	8.3
일반교육 경력	없다	82	61.7
	5년 미만	33	24.8
	5~10년 미만	4	3.0
	10~15년 미만	3	2.3
	15년 이상	11	8.3
직업교육 경력	없다	10	7.5
	3년 미만	85	63.9
	3~5년 미만	16	12.0
	5~10년 미만	15	11.3
	10년 이상	7	5.3
계		133	100

<표 III-1>에서 설문지에 응답한 교사 133명의 변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교사 64.7%, 남교사 35.3%로 여교사의 수가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47.4%, 40대 23.3%, 20대 22.6%, 50대 이상 6.8%순으로 나타났다. 담당 학급별로는 고등부 58.6%, 중학부 41.4%이었고, 소지자격별로는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45.1%, 특수교사+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 39.1%,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 15.8%로 84.2%의 교사가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특수교육 경력별로는 5년 미만 48.9%, 5~10년 미만 27.1%, 10~15년 미만 15.8%, 15년 이상 8.3%로 5년 미만의 교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고, 직업교육 경력별로는 3년 미만 63.9%, 3~5년 미만 12.0%, 5~10년 미만 11.3%, 없다 7.5%, 10년 이상 5.3%였으며, 일반교육 경력별로는 61.7%의 교사가 일반교육 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박창석(2002), 안해령(2003), 유효진(2002), 강병호(2003)의 논문에서 사용되어진 설문지를 참고하여 이 연구 목적에 맞게 지도교수님의 지도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정신지체 특수학교 중·고등부의 직업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 직업교육 지원체제, 취업과 진로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설문지 문항 중 일부는 정신지체 정도에 따라 경도와 중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선다형으로 제시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의 문항별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설문지 구성내용

영역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일반사항	성별, 연령, 담당학급, 소지자격, 교육경력(특수, 일반, 직업)	1~5	5
I. 직업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목표설정 · 직업교육과정 개발 · 직업교육 종목 선정 · 직업담당 교사 자격 · 직업교육 시작 시기 · 직업교육의 중점 · 직업교육 실시 방법 · 적정 학생 수 · 직업지도 부서 배치 · 직업교육 평가방법 · 직업교육 평가시기 · 직업교과 수준선택 방법 · 직업교육 과정 개선점 	I-1~13	13

II. 직업교육과정 지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연계 담당 · 관련 인사 활용 유형 · 관련 인사 활용 방법 · 직업교육 시설 	II-14~17	4
III. 취업과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후 진로 · 직업지도 종목의 영향 · 직업 선택 결정 · 바람직한 취업 알선 · 취업시 어려운 점 · 취업시 필요한 사항 (가정, 사회, 학교) 	III-18~25	8
계			30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2005년 5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4일간 실시하였다. 광주지역 2개교는 인편으로 배포·회수하였고, 전남지역 소재 2개교는 교감 선생님과 해당학교 선생님께 전화 연락을 하여 연구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문조사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우편으로 발송·회수하였다. 우편으로 발송시에는 반송봉투와 감사의 편지를 동봉하였다. 전남 지역 다른 2개교는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한 후 2~3회 정도의 전화 연락을 해서 회수현황을 파악한 뒤 재방문하여 회수하였고, 나머지 1개교는 우편으로 배포한 뒤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7개교에 150부가 배포되어 135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 90%를 나타내었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133부를 가지고 자료분석 및 결과의 정리를 2005년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였다.

4. 자료 처리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자료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문항별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변인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교차분석을 하여 유의수준 .05에서 χ^2 검증을 통해 차이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정인지체특수학교의 직업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교사 133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및 운영, 지원체제, 취업과 진로에 대한 요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고, 교차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난 성별·직업경력별 문항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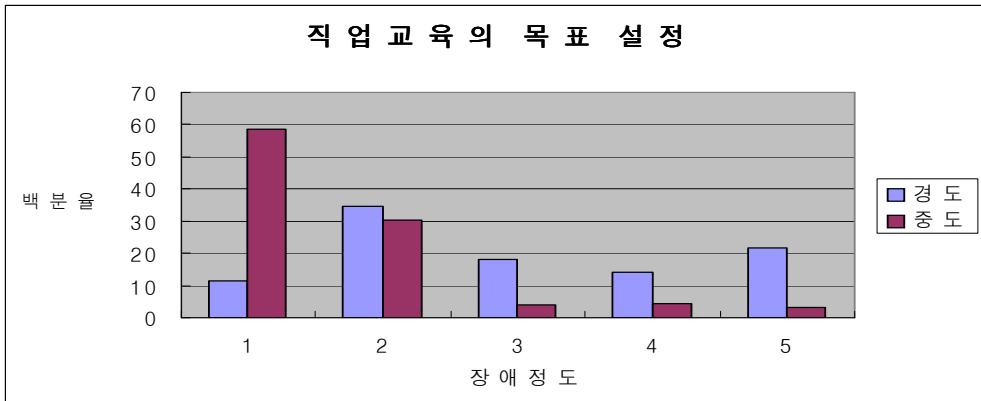
1. 직업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교사의 요구

1) 직업교육 목표설정

정인지체학생 직업교육시 목표를 설정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1>, <표 IV-2>, <그림 IV-1>과 같다.

<표 IV-1> 직업교육의 목표 설정

문항 1		경도		중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직업교육 목표설정	①기본적인 학습능력 신장	15	11.3	78	58.6
	②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	46	34.6	40	30.1
	③직업탐색 및 인식	24	18.0	5	3.8
	④사회적 책임감과 긍정적인 태도 형성	19	14.3	6	4.5
	⑤구체적인 직업기능 습득	29	21.8	4	3.0
합 계		133	100.0	133	100.0



<그림 IV-1> 직업교육의 목표 설정

교사들은 경도 정신지체학생 지도시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34.6%), 구체적인 직업기능 습득(21.8%)순으로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도 정신지체학생 지도시에는 기본적인 학습능력 신장(58.6%),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30.1%)순으로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정신지체학생의 직업교육목표는 기본적인 학습능력 신장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경도 정신지체학생의 직업목표는 다양한 영역에 고루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중도 정신지체 학생의 직업교육 목표 설정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성별	남	30(65.2)	9(19.6)	4(8.7)	4(8.7)	·	47(100)	15.637 *
	여	48(55.8)	31(36.0)	1(1.2)	2(2.3)	4(4.7)	86(100)	
전 체	78(58.6)	40(30.1)	5(3.8)	6(4.5)	4(3.0)	133(100)	df=4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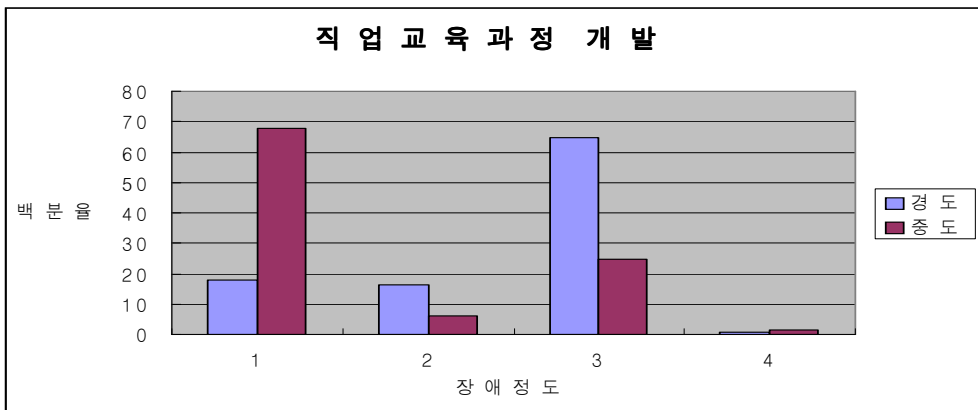
중도 정신지체학생의 직업교육 목표 설정시 중점 사항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보면, 기본적인 학습능력의 신장에 남성(65.2%)과 여성(55.8%) 모두 가장 우선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에도 높은 응답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직업교육과정 개발

정신지체학생의 직업교육과정은 어떤 측면에 비중을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3>, <표 IV-4>, <그림 IV-2>와 같다.

<표 IV-3> 직업교육과정 개발

문항 2		경도		중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직업 교육 과정 개발	①현실문제 해결에 역점	24	18.0	90	67.7
	②미래 사회 겨냥한 교육에 역점	22	16.5	8	6.0
	③실제 일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역점	86	64.7	33	24.8
	④기타	1	.8	2	1.6
	합 계	133	100.0	133	100.0



<그림 IV-2> 직업교육과정 개발

경도 정신지체학생은 실제 일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역점(64.7%), 현실문제 해결에 역점(18.0%), 미래 사회 겨냥한 교육에 역점(16.5%)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도 정신지체 학생은 현실문제 해결에 역점(67.7%), 실제 일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역점(24.8%)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경도 정신지체학생 직업교육에는 실제 일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비중을 두고 직업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중도 정신지체학생 직업교육에는 현실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래 사회를 겨냥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는 의견에 경도 정신지체학생 16.5%와 중도 정신지체학생 6.0%으로 나타났다.

<표 IV-4> 중도 정신지체학생의 직업교육과정 개발

구 분		①	②	③	계	χ^2
직업 교육 경력	없다	6(60.0)	·	4(40.0)	10(100)	33.469 *
	3년 미만	57(67.1)	6(7.1)	21(24.7)	85(100)	
	3~5년 미만	11(68.8)	·	5(31.3)	16(100)	
	5~10년 미만	14(93.3)	·	1(6.7)	15(100)	
	10년 이상	2(28.6)	2(28.6)	2(28.6)	7(100)	
전 체		90(67.7)	8(6.0)	33(24.80)	133(100)	df=12

* p < .05

중도 정신지체학생의 직업교육과정 개발시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응답에서 직업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교육경력 별로 보면, 5~10년 미만의 교사 93.3%, 3~5년 미만의 교사 68.8%, 3년미만 교사 67.1%, 직업교육경력 없는 교사 60.0%, 10년 이상 교사 28.6%순으로 현실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다를 우선 순으로 꼽았다. 특히 직업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들은 미래 사회를 겨냥한 교육에도 역점을 둔다에 28.6%의 응답을 보이며, 각 문항에 고른 응답을 나타냈다.

3) 직업교육 종목 선정

정신지체학교 직업교육 종목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5>과 같다.

<표 IV-5> 직업교육 종목 선정

문항 3		빈도(명)	백분율(%)
직업교육 종목선정	①국가수준교육기관이나 정부 차원	16	12.0
	②학교와 직업교육교사 협의	28	21.1
	③학부모와 학교 협의	19	14.3
	④지역 산업체와 학교와의 협의	63	47.4
	⑤기타	7	5.3
	합 계	133	100.0

직업교육 종목 선정은 지역 산업체와 학교가 협의한다(47.4%), 학교와 직업교육교사가 협의한다(21.1%), 학부모와 학교가 협의한다(14.3%), 국가수준교육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선정한다(12.0%)순으로 나타나 국가보다는 지역이나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 종목 선정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역산업체와 학교와의 협의 다음으로 국가수준교육기관이나 정부차원의 선정에 높은 응답이 나타났던 박창석(200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직업담당 교사임용

직업담당 교사의 바람직한 임용방법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직업담당 교사임용

문항 4		빈도(명)	백분율(%)
직업담당 교사임용	①해당 분야 직종 전문가	26	19.5
	②특수교육전공 교사	21	15.8
	③일반 실업전공 교사	2	1.5
	④실업과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	48	36.1
	⑤직업재활을 전공한 교사	33	24.8
	합 계	133	100.0

직업담당 교사의 바람직한 임용방법은 실업과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36.1%), 직업재활을 전공한 교사(24.8%), 해당 분야 직종 전문가(19.5%), 특수교육전공 교사(15.8%)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육전공 교사가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직업과 관련된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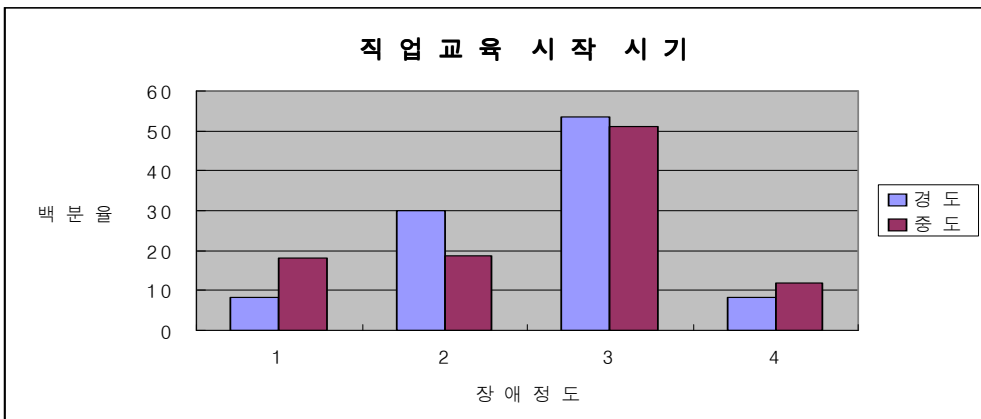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직업교육 시작 시기

직업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7>, <그림 IV-3>과 같다.

<표 IV-7> 직업교육 시작 시기

문항 5		경도		중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직업교육 시작시기	①초등부 저학년(1~3학년)	11	8.3	24	18.0
	②초등부 고학년(4~6학년)	40	30.1	25	18.8
	③중학부	71	53.4	68	51.1
	④고등부	11	8.3	16	12.0
	합 계	133	100	133	100.0



<그림 IV-3> 직업교육 시작 시기

직업교육 시작 시기는 경도 정신지체 학생의 경우 중학부(53.4%), 초등부 고학년(30.1%), 초등부 저학년(8.3%), 고등부(8.3%)순으로, 중도 정신지체 학생의 경우는 중학부(51.1%), 초등부 고학년(18.8%), 초등부 저학년(18.0%), 고등부(12%)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직업교육을 중학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며, 중도 정신지체 학생의 경우 경도 정신지체 학생에 비해 초등부 저학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높은 응답이 나타났다.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6) 직업교육 실시 방법

정신지체 학생 직업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직업교육 실시 방법

문항 6		빈도(명)	백분율(%)
직업 교육 실시 방법	① 학교내 시설에서 이론과 실습 병행	24	18.0
	② 학교에서는 이론교육, 산업체에서 실습교육	10	7.5
	③ 학교에서 이론과 가장 기본적인 기술만 실시, 전문적 기술은 산업체의 협조	92	69.2
	④ 산업체에 위탁하여 이론과 실습교육	4	3.0
	합 계	133	100.0

정신지체 학생 직업교육 실시 방법은 학교에서 이론과 가장 기본적인 기술만 실시하고 전문적 기술은 산업체의 협조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69.2%), 학교내 시설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18.0%), 학교에서는 이론교육, 산업체에서 실습교육(7.5%)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학교 내의 시설만 활용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현실 속에서 산업체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직업교육 방법의 변화와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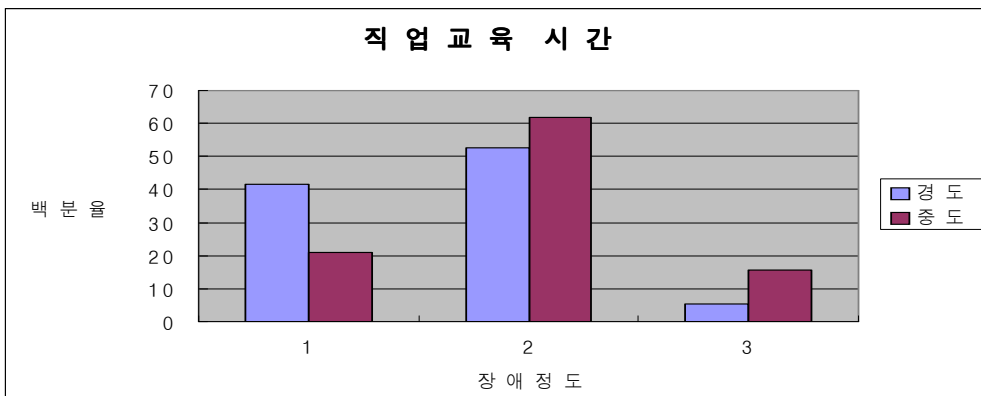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7) 직업교육 시간

전체 교육배정시간에서 직업교육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9>, <표 IV-10>, <그림 IV-4>과 같다.

<표 IV-9> 직업교육 시간

문항 7		경도		중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직업교육 시간	①늘려야 한다.	55	41.4	28	21.1
	②적당하다.	70	52.6	82	61.7
	③줄여야 한다.	7	5.3	21	15.8
	합 계	133	100.0	133	100.0



<그림 IV-4> 직업교육 시간

직업교육시간은 경도 정신지체학생의 경우 적당하다(52.6%), 늘려야 한다(41.4%), 줄여야 한다(5.3%)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도 정신지체학생은 적당하다(61.7%), 늘려야 한다(21.1%), 줄여야 한다(15.8%)순으로 나타났다. 경도 정신지체학생은 적당하다 다음으로 늘려야 한다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난 반

면, 중도 정인지체학생은 경도 정인지체학생에 비해 줄여야 한다에 대한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직업교육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이승미(200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표 IV-10> 경도 정인지체 학생 직업교육 시간

구 분		①	②	③	계	X ²
직업 교육 경력	없다	5(50.0)	5(50.0)	·	10(100)	25.184 *
	3년 미만	40(47.1)	42(49.4)	3(3.5)	85(100)	
	3~5년 미만	6(37.5)	8(50.0)	1(6.3)	16(100)	
	5~10년 미만	1(6.7)	13(86.7)	1(6.7)	15(100)	
	10년 이상	3(42.9)	2(28.6)	2(28.6)	7(100)	
전 체		55(41.4)	70(52.6)	7(5.3)	133(100)	df=12

* p < .05

경도 정인지체학생의 직업교육 시간에 대한 응답에서 직업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교육경력별로 보면,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직업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42.9%)는 의견이 적당하다(28.6%)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8) 적정 학생 수

직업교육 시 적정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적정 학생 수

문항 8		빈도(명)	백분율(%)
적정 학생 수	①3명 미만	9	6.8
	②4~5명	75	56.4
	③6~7명	46	34.6
	④8~10명	3	2.3
	합 계	133	100.0

장애정도와 중복성을 고려할 경우 적정 학생 수는 4~5명(56.4%), 6~7명(34.6%), 3명 미만(6.8%)순으로 나타나 직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 학급당 인원수가 4~7명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9) 직업지도 부서 배치

직업지도 시 부서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12>, <표 IV-13>과 같다.

<표 IV-12> 직업지도 부서 배치

문항 9		빈도(명)	백분율(%)
직업지도 부서 배치	① 학생의 희망	5	3.8
	② 학부모의 희망	1	0.8
	③ 학교의 방침과 교사의 판단	9	6.8
	④ 학교방침, 교사, 학부모 협의	67	50.4
	⑤ 학생의 작업·직업평가에 따라	49	36.8
	합 계	133	100.0

정신지체 학생의 직업지도 시 부서배치는 학교의 방침과 교사·학부모가 협의하여 결정(50.4%), 학생의 작업·직업평가에 따라(36.8%), 학교의 방침과 교사의 판단(6.8%)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작업·직업평가에 따라 배치한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던 박창석(200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표 IV-13> 직업지도 부서 배치(성별·직업교육경력별)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성별	남	2(4.3)	1(2.2)	4(8.7)	19(41.3)	21(45.7)	47(100)	19.572 *
	여	3(3.5)	·	5(5.8)	48(55.8)	28(32.6)	86(100)	

직업 교육 경력	없다	1(10.0)	·	·	6(60.0)	3(30.0)	10(100)	33.123 *
	3년 미만	2(2.4)	1(1.2)	2(2.4)	47(55.3)	32(37.6)	85(100)	
	3~5년 미만	1(6.3)	·	3(18.8)	4(25.0)	7(43.8)	16(100)	
	5~10년 미만	·	·	1(6.7)	9(60.0)	5(33.3)	15(100)	
	10년 이상	1(14.3)	·	3(42.9)	1(14.3)	2(28.6)	7(100)	
전 체		5(3.8)	1(0.8)	9(6.8)	67(50.4)	49(36.8)	133(100)	

* p < .05

직업지도 부서 배치에 대한 응답은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학생의 작업·직업평가에 따라 결정한다(45.7%)에 대한 의견이 많은 반면, 여성은 학교방침과 교사·학부모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55.8%)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직업교육경력별로 보면, 3년 미만의 교사(55.3%)나 5~10년 미만의 교사(60.0%)는 학교의 방침과 교사·학부모 협의에, 3~5년 미만의 교사(43.8%)는 학생의 작업·직업평가에 따라 결정한다에 대한 의견이 많은 반면 10년 이상의 교사(42.9%)는 학교의 방침과 교사의 판단으로 결정한다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10) 직업교육 평가방법

직업교육의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14>과 같다.

<표 IV-14> 직업교육 평가방법

		문항 10	빈도(명)	백분율(%)
직업교육 평가방법	①지필평가		1	0.8
	②관찰평가		43	32.3
	③포트폴리오		18	13.5
	④종합평가		66	49.6
	합 계		133	100.0

직업교육의 평가방법은 종합평가(49.5%), 관찰평가(32.3%), 포트폴리오(13.5%), 지필평가(0.8%)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와 관찰평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11) 직업교육 평가 시기

직업교육의 평가 시기는 언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15>, <표 IV-16>과 같다.

<표 IV-15> 직업교육 평가 시기

문항 11		빈도(명)	백분율(%)
직업교육 평가지기	①단원별로	15	11.3
	②매월	19	14.3
	③중간과 기말	50	37.6
	④수시로	48	36.1
	합 계	133	100.0

직업교육의 평가 시기는 중간과 기말(37.6%), 수시로(36.1%), 매월(14.3%), 단원별로(11.3%)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시로에 대한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왔던 안해령(200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나 이 연구 또한 중간과 기말, 수시로에 대한 응답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16> 직업교육 평가 시기(직업교육경력별)

구 분		①	②	③	④	계	χ^2
직업 교육 경력	없다	2(20.0)	3(30.0)	2(20.0)	3(30.0)	10(100)	32.244 *
	3년 미만	9(10.6)	11(12.9)	32(37.6)	33(38.8)	85(100)	
	3~5년 미만	·	3(18.8)	5(31.3)	8(50.0)	16(100)	
	5~10년 미만	2(13.3)	2(13.3)	9(60.0)	2(13.3)	15(100)	
	10년 이상	2(28.6)	·	2(28.6)	2(28.6)	7(100)	
전 체		15(11.3)	19(14.3)	50(37.6)	48(36.1)	133(100)	df=16

* $p < .05$

직업교육 평가시기에 대한 응답에서 직업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5년 미만의 교사(50.0%)는 수시로에 대한 의견이 많은 반면 5~10년 미만의 교사(60.0%)는 중간과 기말고사에 높은 응답을 하였다.

12) 직업교과 수준 선택 방법

기본교육과정의 직업교과 수준 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17>, <표 IV-18>과 같다.

<표 IV-17> 직업교과 수준 선택 방법

문항 12		빈도(명)	백분율(%)
직업교과 수준선택 방법	① 학생의 생활연령에 따라	6	4.5
	② 학생의 기초 작업 능력에 따라	112	84.2
	③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8	6.0
	④ 직업 관심 분석에 따라	6	4.5
	합 계	133	100.0

기본교육과정 직업교과 수준 선택 방법은 학생의 기초 작업 능력에 따라(84.2%),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6.0%), 학생의 생활연령에 따라(4.5%), 직업 관심 분석에 따라(4.5%)순으로 응답해, 교사들은 학생의 기초 작업능력에 따라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직업교과 수준 선택 방법(직업교육경력별)

구 분		①	②	③	④	계	χ^2
직업 교육 경력	없다	·	8(80.0)	1(10.0)	1(10.0)	10(100)	30.666 *
	3년 미만	3(3.5)	77(90.6)	2(2.4)	3(3.5)	85(100)	
	3~5년 미만	1(6.3)	11(68.8)	2(12.5)	196.3)	16(100)	
	5~10년 미만	·	13(86.7)	1(6.7)	1(6.7)	15(100)	
	10년 이상	2(28.6)	3(42.9)	2(28.6)	·	7(100)	
전 체		6(4.5)	112(84.2)	8(6.0)	6(4.5)	133(100)	df=16

* p < .05

직업교과 수준 선택 방법에 대한 응답에서 직업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학생의 기초 작업능력에 따라 교과 수준을 선택한다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년 미만 교사(12.5%)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한다에, 10년 이상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28.6%), 학생의 생활연령에 따라 선택한다(28.6%)에 다른 교사들에 비해 다소 높은 응답을 하였다.

13) 직업교육과정 개선점

직업교육과정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19>과 같다.

<표 IV-19> 직업교육과정 개선점

문항 13		빈도(명)	백분율(%)
직업교육 과정 개선점	①실제 일할 수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41	30.8
	②체계적인 직업교사 양성	10	7.5
	③직업직종 개발	35	26.3
	④적성 및 흥미에 맞는 직업평가	8	6.0
	⑤직업교육 시설 확충	10	7.5
	⑥산업체와 연계된 교육 실시	28	21.1
	합 계	133	100.0

직업교육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30.8%), 직업직종 개발(26.3%),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실시(21.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다음으로 체계적인 직업교사 양성에 높은 응답이 나타났던 박창석(200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직업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교사의 요구

1) 산업체 연계 담당

지역관련 업체와의 연계학습을 위한 사전 관계형성은 주로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20>과 같다.

<표 IV-20> 산업체 연계 담당

문항 14		빈도(명)	백분율(%)
산업체 연계 담당	①국가	49	36.8
	②학교장	19	14.3
	③교사	26	19.5
	④부모, 가족	5	3.8
	⑤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단	30	22.6
	합 계	133	100.0

지역관련 업체와의 사전 관계 형성은 국가(36.8%),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단(22.6%), 교사(19.5%), 학교장(14.3%), 부모나 가족(3.8%)순으로 나타났다. 사전 관계 형성에 있어 국가나 장애인 관련기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관련 인사 활용 유형

직업교육에 어떤 인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21>과 같다.

<표 IV-21> 관련 인사 활용 유형

문항 15		빈도(명)	백분율(%)
관련인사 활용 유형	①학부모	5	3.8
	②지역사회 관련인사	36	27.1
	③업체인사	58	43.6
	④복지관 인사	3	2.3
	⑤고용촉진공단 인사	27	20.3
	⑦기타	4	3.0
	합 계	133	100.0

직업교육시 인사 활용에 대한 요구는 업체인사(43.6%), 지역사회 관련인사(27.1%), 고용촉진공단 인사(20.3%), 학부모(3.8%)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업체인사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관련 인사 활용 방법

직업교육을 위해 관련인사들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22>, <표 IV-23>과 같다.

<표IV-22> 관련 인사 활용 방법

문항 16		빈도(명)	백분율(%)
관련인사 활용 방법	①수업	2	1.5
	②강연 및 특강	8	6.0
	③체험학습 보조	50	37.6
	④자문	11	8.3
	⑤수업보조	4	3.0
	⑥취업정보자료 제공	56	42.1
	합 계	133	100.0

직업교육을 위한 관련인사 활용 방법은 취업정보 자료 제공(42.1%), 체험학

습 보조 (37.6%), 자문(8.3%), 강연 및 특강(6.0%)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체험학습시 보조 인력과 취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23> 관련 인사 활용 방법(직업교육경력별)

구 분		②	③	④	⑤	⑥	계	χ^2
직업 교육 경력	없다	·	6(60.0)	·	1(10.0)	3(30.0)	10(100)	62.314 *
	3년 미만	4(4.7)	32(37.6)	10(11.8)	1(1.2)	37(43.5)	85(100)	
	3~5년 미만	1(6.3)	4(25.0)	·	2(12.5)	8(50.0)	16(100)	
	5~10년 미만	3(20.0)	7(46.7)	·	·	5(33.3)	15(100)	
	10년 이상	·	1(14.3)	1(14.3)	·	3(42.9)	7(100)	
전 체		8(6.0)	50(37.6)	11(8.3)	4(3.0)	56(42.1)	133(100)	df=24

* p < .05

직업교육을 위한 관련인사 활용 방법에 대한 응답에서 직업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교육경력이 있는 3년 미만 교사(43.5%)와 3~5년 미만 교사(50.0%), 10년 이상 교사(42.9%)는 교사들은 취업정보 자료 제공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고, 5~10년 미만 교사(46.7%)와 직업교육 경력이 없는 교사(60.0%)는 체험학습 보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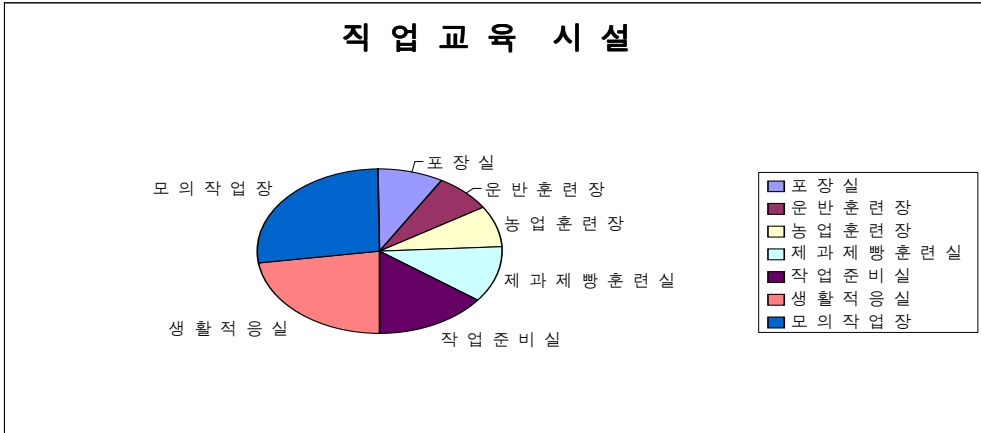
4) 직업교육 시설

직업교육 관련 시설 중 증설되거나 설치되기를 바라는 시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24>, <그림 IV-5>과 같다.

<표 IV-24> 직업교육 시설(다중응답)

문항 17 (3가지 선택)						
직업교육 시설	①공예실	11	2.8	⑧정보처리 훈련실	14	3.5
	②포장실	28	7.0	⑨상업디자인실	5	1.3
	③조립실	16	4.0	⑩직업준비실	47	11.8
	④운반훈련장	25	6.3	⑪생활적응실	74	18.5

⑤농업훈련장	27	6.8	⑫모의작업장	90	22.6
⑥전자조립실	15	3.8	⑬컴퓨터실	7	1.8
⑦제과제빵훈련실	35	8.8	합 계	399	100.0



〈그림 IV-5〉 직업교육 시설

직업교육 관련 시설 중 증설되거나 설치되기를 바라는 시설은 모의작업장(22.6%), 생활적응실(18.5%), 직업준비실(11.8%), 제과·제빵 훈련실(8.8%), 포장실(7.0%), 농업훈련장(6.8%), 운반훈련장(6.3%)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종목과 관련된 시설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보다 종합적인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모의작업장이나, 생활적응실, 직업준비실 등에 대한 설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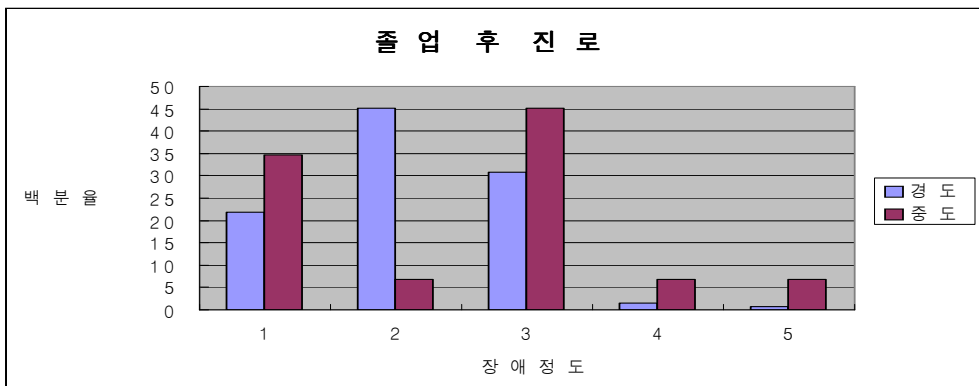
3. 취업과 진로에 대한 교사의 요구

1) 졸업 후 진로

고등부 졸업 후 가장 적합한 진로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25>, <그림 IV-6>과 같다.

〈표 IV-25〉 졸업 후 진로

문항 18		경도		중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졸업 후 진로	①전공과 진학	29	21.8	46	34.6
	②취업	60	45.1	9	6.8
	③직업 훈련	41	30.8	60	45.1
	④상위학교 진학	2	1.5	9	6.8
	⑤기타	1	0.8	9	6.8
	합 계	133	100	133	100.0



〈그림 IV-6〉 졸업 후 진로

경도 정신지체학생의 고등부 졸업 후 진로는 취업(45.1%), 직업훈련(30.8%), 전공과 진학(21.8%)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도 정신지체학생은 직업훈련(45.1%), 전공과 진학(34.6%), 취업(6.8%)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경도 정신지체학생들은 취업에, 중도 정신지체학생들은 직업훈련에 높은 응답을 하여 중증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직업교육 종목의 영향

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종목이 학생의 취업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26>, <표 IV-27>과 같다.

<표 IV-26> 직업교육 종목의 영향

		문항 19	빈도(명)	백분율(%)
직업지도 종목의 영향	① 교육받은 직업종목 취업 가능		3	2.3
	② 교육받은 직업종목 취업 어려워도 약간 도움		95	71.4
	③ 취업에 별다른 도움 주지 못함		34	25.6
	합 계		133	100.0

직업교육 종목이 취업에 주는 영향은 교육받은 직업종목으로의 취업은 어려워도 약간 도움(71.4%), 취업에 별다른 도움 주지 못함(25.6%), 교육받은 직업종목 취업 가능(2.3%)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직업교육 종목의 영향(직업교육경력별)

구 분		①	②	③	계	X ²
직업 교육 경력	없다	1(10.0)	7(70.0)	2(20.0)	10(100)	22.173 *
	3년 미만	·	62(72.9)	23(27.1)	85(100)	
	3~5년 미만	2(12.5)	11(68.8)	2(12.5)	16(100)	
	5~10년 미만	·	11(73.3)	4(26.7)	15(100)	
	10년 이상	·	4(57.1)	3(42.9)	7(100)	
전 체		3(2.3)	95(71.4)	34(25.6)	133(100)	df=12

* p < .05

직업교육 종목이 취업에 주는 영향에 대한 응답에서 직업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받은 직업종목별로 취업이 어려워도 취업에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높은 응답을 나타낸 가운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은 취업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함(42.9%)에 다른 교사들에 비해 높은 응답을 하였다.

3) 직업 선택 결정

정신지체 학생의 직업 선택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28>, <표 IV-29>과 같다.

<표 IV-28> 직업 선택 결정

문항 20		빈도(명)	백분율(%)
직업 선택 결정	① 학생의 생각	1	0.8
	② 부모의 생각	2	1.5
	③ 교사의 지도조언	9	6.8
	④ 학생, 부모, 교사의견 종합	121	91.0
	합 계	133	100.0

정신지체 학생의 직업선택은 학생, 부모, 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91.0%), 교사의 지도 조언(6.8%), 부모의 생각(1.5%)순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IV-29> 직업 선택 결정(성별)

구 분		①	②	③	④	계	χ^2
성별	남	·	1(2.2)	6(13.0)	40(87.0)	47(100)	17.210 *
	여	1(1.2)	1(1.2)	3(3.5)	81(94.2)	86(100)	
전 체		1(0.8)	2(1.5)	9(6.8)	121(91.0)	133(100)	df=3

* $p < .05$

직업선택의 결정 방법에 대한 응답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여 모두 학생, 부모, 교사의 의견을 종합한다에 높은 의견을 나타낸 가운데, 남성은 교사의 지도 조언에 의해 결정한다(13%)에 여성(3.5%)에 비해 높은 응답을 하였다.

4) 바람직한 취업 알선 방법

직업교육 후 졸업예정자에 대한 바람직한 취업알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30>과 같다.

<표 IV-30> 바람직한 취업 알선 방법

문항 21		빈도(명)	백분율(%)
바람직한 취업알선	① 고용촉진공단	27	20.3
	③ 학교	8	6.0
	④ 현장실습 통해	77	57.9
	⑤ 산업체에서 학교에 취업 의뢰	18	13.5
	⑥ 기타	3	2.3
	합 계	133	100.0

직업교육 후 졸업예정자에 대한 바람직한 취업알선 방법은 현장실습을 통해(57.9%), 고용촉진공단(20.3%), 산업체에서 학교에 취업 의뢰(13.5%), 학교(6.0%)순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취업 경로를 조사한 이승미(2001)의 연구에서 학교에서 취업을 알선하여 취업한다에 가장 높은 응답이 나타났던 현실 태와는 달리 교사들은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을 가장 원하였으며, 취업알선에 있어서 학교보다는 고용촉진공단이나 산업체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취업시 어려운 점

정신지체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31>, <표 IV-32>과 같다.

〈표 IV-31〉 취업시 어려운 점

문항 22		빈도(명)	백분율(%)
취업시 어려운점	①취업할 사업체 발굴 어려움	61	45.9
	②취업 의욕 결여	9	6.8
	③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부족	32	24.1
	④취업 정보 부족	5	3.8
	⑤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	23	17.3
	합 계	133	100.0

정신지체 학생들의 취업시 어려운 점은 취업할 사업체 발굴 어려움(45.9%),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부족(24.1%),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부족(17.3%), 취업 의욕 결여(6.8%)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취업할 사업체의 발굴을 정신지체인 취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표 IV-32〉 취업시 어려운 점(성별)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성별	남	23(50.0)	1(2.2)	11(23.9)	2(4.3)	9(17.4)	47(100)	29.754 * *
	여	38(44.2)	8(9.3)	21(24.4)	3(3.5)	15(17.4)	86(100)	
전 체		61(45.9)	9(6.8)	32(24.1)	5(3.8)	23(17.3)	133(100)	df=5

* * p < .01

정신지체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할 사업체 발굴의 어려움에 남교사(50.0%)가 여교사(44.2%)에 비해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취업의욕 결여에 여교사(9.3%)가 남교사(2.2%)에 비해 높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취업을 위해 가정에 요구되는 사항

정신지체 학생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정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33>과 같다.

〈표 IV-33〉 취업시 가정에 요구되는 사항

문항 23		빈도(명)	백분율(%)
취업시 가정에 요구되는 사항	① 부모들의 관심	48	36.1
	② 경제적 뒷받침	9	6.8
	③ 취미, 특기 살려주기	9	6.8
	④ 자립심 고취	64	48.1
	합 계	133	100.0

정신지체 학생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정에 요구되는 사항은 자립심 고취(48.1%), 부모들의 관심(36.1%), 경제적 뒷받침(6.8%), 취미·특기 살리기(6.8%)순으로 타났다. 자립심 고취와 부모들의 관심에 높은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교사들은 부모들의 과보호가 아닌 적극적이면서도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가정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7) 취업을 위해 사회에 요구되는 사항

정신지체 학생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34>과 같다.

〈표 IV-34〉 취업시 사회에 요구되는 사항

문항 24		빈도(명)	백분율(%)
취업시 사회에 요구되는 사항	① 법적 취업 보장	31	23.3
	② 사회적 편견 제거	24	18.0
	③ 취업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20	15.0
	④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55	41.4
	합 계	133	100.0

정신지체 학생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에 요구되는 사항에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41.4%), 법적 취업 보장(23.3%), 사회적 편견 제거(18.8%), 취업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15%)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장

애인 취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사회에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8) 취업을 위해 학교에 요구되는 사항

정신지체 학생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35>과 같다.

<표 IV-35> 취업시 학교에 요구되는 사항

문항 25		빈도(명)	백분율(%)
취업시 학교에 요구되는 사항	①개인차에 따른 능력 개발	42	31.6
	②진학과 취업 구별하여 지도	13	9.8
	③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	66	49.6
	④직업 선택에 대한 상담	2	1.5
	⑤견학 등 통해 경험 넓혀주기	9	6.8
합 계		133	100.0

정신지체 학생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 요구되는 사항에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49.6%), 개인차에 따른 능력 개발(31.6%), 진학과 취업 구별하여 지도(9.8%), 견학 등 통해 경험 넓혀주기(6.8%)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직업교육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인지체특수학교 직업교육에 대한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여 직업교육의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정인지체특수학교의 교사 133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및 운영, 지원체제, 취업과 진로에 대한 요구를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얻어진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결론

1) 직업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교사의 요구

첫째, 직업교육의 목표설정과 직업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서 경도 정인지체학생 지도시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이나 구체적인 직업기능 습득을 목표로 하고, 직업교육과정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중도 정인지체학생들은 기본적인 학습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현실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직업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교육 종목 면에서 종목선정은 지역 산업체와 학교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보다는 지역이나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 종목 선정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종목에 대한 부서배치는 학교의 방침과 교사·학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담당 교사의 임용은 실업과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36.1%), 직업재활을 전공한 교사(24.8%), 해당 분야 직종 전문가(19.5%)순으로 응답하여 특수교육전공 교사가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직업교육과 관

련된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넷째, 직업교육의 운영 면에서 직업교육 시작 시기는 전체적으로 중학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중도 정신지체학생의 경우 경도 정신지체학생에 비해 초등부 저학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직업교육 실시 방법은 학교에서 이론과 가장 기본적인 기술만 실시하고 전문적 기술은 산업체의 협조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주로 학교 내의 시설만 활용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현실 속에서 산업체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직업교육 방법의 변화와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직업교육 시간은 주당 10시간(중학부), 주당 12시간(고등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가 적당하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경도 정신지체학생의 경우 늘려야 한다(41.4%)에도 높은 응답을 보여 교사들이 경도정신지체 학생들의 직업교육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해령(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학급당 인원수는 8~15명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들은 4~5명(56.4%), 6~7명(34.6%)정도를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학급당 인원수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섯째, 직업교육의 평가와 적용방법 면에서 교사들은 종합평가나 관찰평가 방법을 통해 중간과 기말 때 혹은 수시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기본교육과정의 직업교과 수준 선택은 학생의 기초 작업 능력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직업교육과정 개선점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직업직종 개발,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실시 등으로 나타났다.

2) 직업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교사의 요구

첫째, 산업체 연계 담당 면에서 지역관련 업체와의 사전 관계 형성은 국가,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단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에 높은 응답을 나타내어 학교보다는 국가나 장애인 관련기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관련인사 활용 면에서 교사들은 직업교육에 업체인사의 활용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업체인사와의 교류를 통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였다. 관련인사의 활용 방법은 취업정보 자료 제공과 체험학습 보조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직업교육 관련 시설 면에서 증설되거나 설치되기를 바라는 시설은 모의작업장, 생활적응실, 직업준비실에 높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구체적인 직업종목과 관련된 시설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보다 종합적인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설치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취업과 진로에 대한 교사의 요구

첫째, 고등부 졸업 후 진로 면에서 경도 정신지체학생들은 취업에, 중도 정신지체학생들은 직업훈련에 높은 응답을 하여 중증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들은 장애 특성상 1~2년 정도의 집중적인 훈련으로는 직업능력 향상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현장에서부터 보다 철저하고 충분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직업교육 종목의 영향과 직업선택 면에서 교사들은 교육받은 직업종목별로 취업이 어려워도 취업에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직업선택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셋째, 취업 알선 방법과 취업시 어려운 면에서 교사들은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취업알선에 있어서 학교보다는 고용촉진공단이나 산업체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할 사업체의 발굴을 정신지체인 취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넷째, 정신지체 학생의 취업을 위한 요구 면에서 가정에서는 자립심 고취와 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높은 응답을 보여 교사들이 부모들의 과보호가 아닌 적극적이면서도 아동의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가정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법적 취업 보장에 높은 응답을 하여 장애인 취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사회에 요구하였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이 실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바탕으로 정신지체특수학교 직업교육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은 직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회성, 여가기술 등 다양한 내용의 접근과 장애특성·시기·정도에 따른 다양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특히, 장애 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체적인 직업교육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적절한 환경구성과 시설보완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기존의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은 인적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지원체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현재의 직업교육은 지원체제가 미흡하여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대처만 가능하게 한다.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관련인사의 활용,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고, 지역내 공공기관이나 업체들을 진로나 직업관련 협력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병호 외(2003). 특수교육기관의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안산 : 국립 특수교육원.
- 곽준기(1995). 정신지체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전환과정 결과 추적조사연구. 재활재단논문집.
- 교육부(1998). 특수학교교육과정 【별책1·2】.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9). 특수학교교육과정 【해설서 I·III】.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3). 2003년 정기국회보고자료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구본권 외(2000). 특수교육학.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승국(1998). 정신지체아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영환(1993). 정신지체아 직업지도의 이론과 실제-특수학교 직업지도의 이론가 실제.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자료 15. 서울 : 교육부.
- 김진영(2004). 정신지체학교 고등부 직업전환교육의 실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석(2002). 정신지체아 직업진로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요구 분석.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천재(2003). 중학교 특수학급 진로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정·윤점룡(1982). 정신박약아 직업 교육과정 모형개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박희찬·이효자(1998). 경도(중도) 장애학생 전환교육의 실제.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박희찬(1999). 전환교육의 이론과 적용방안. 제44회 전국특수교육연수회.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 박희찬(2002). 장애졸업생 추적조사와 전환교육. 특수교육학연구. 37(2). 한국특수교육학회. 79-111.
- 서승의(2000). 중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로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금희(2002). 중·고등학교 정신지체학생의 직업 흥미 조사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2003).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공주대학

- 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해령(2003).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직업교과교육의 실태 및 교사들의 요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상현(2003).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재활교육의 실태조사. 광주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점화(2003).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 13집 2호. 한국직업재활학회.
- 유효진(2002). 정신지체 특수학교 중학부 직업교육 실태와 부모·교사의 요구. 창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2004). 정신지체 특수학교 고등부 직업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창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숙(2002). 정신지체학생 직업교육 관련 논문 분석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무근(1999). 직업교육학 원론.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성욱(1996).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2001).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승욱(1994). 정신지체학교 직업지도교사의 진로교육 인식과 실태분석.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인수(1999). 발달지체인의 직업지도. 대구 : 동화문화사.
- 조인수(2000). 장애인의 전환교육. 대구 : 대구대학교출판부.
- 한경혜(1999). 정신지체아 중등과정의 진로교육 실태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1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허석(2004). 정신지체 특수학교 고등부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kise.go.kr/>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Bitter, J. A. (1979). *Introduction to Rehabilitation*. St. Louis : The C. V. Mosby Company.

부 록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의 직업교과(Ⅰ.사회생활, Ⅱ.직업준비, Ⅲ.작업기능)와 고등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직업교과 8개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 전자조립, 제과·제빵, 정보처리, 상업디자인, 이료), 전문교과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설문 내용 중 장애 정도를 구분(경도/ 중도)한 문항은 **경도** 정신지체학생 직업교육과 **중도(중등도, 중도, 최종도 포함)**정신지체학생 직업교육으로 나누어 각각에 √표 해주십시오.

	AAMR	DSM-III
경도	50/55~70	50~70
중등도	35/40~50/55	35~49
중도	20/25~35/40	20~34
최중도	20~25이하	20이하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I. 직업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

1. 선생님께서는 학급의 정신지체학생 직업교육시 목표설정은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도학생 지도시 목표에 √표, 중도학생 지도시 목표에 √표 해주십시오.)

<경도> <중도>

- ____, ____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의 신장
 ____ , ____ ②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
 ____ , ____ ③ 직업탐색 및 인식
 ____ , ____ ④ 사회적 책임감과 긍정적인 태도 형성
 ____ , ____ ⑤ 구체적인 직업기능 습득
 ____ , ____ ⑥ 기타 ()

2. 정신지체학생 직업교육과정은 어떤 측면에 비중을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도> <중도>

- ____, ____ ① 주로 현실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____ , ____ ② 주로 미래 사회를 겨냥한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____ , ____ ③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____ , ____ ④ 기타 ()

3. 정신지체 직업교육 종목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수준의 교육연구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 ② 학교와 직업교육교사들의 협의를 통해서
- ③ 학부모와 학교의 협의를 통해서
- ④ 지역 산업체와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 ⑤ 기타 ()

4. 직업담당 교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해당분야 직종 전문가(개방형 임용) ② 특수교육전공 교사
- ③ 일반 실업전공 교사 ④ 실업과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
- ⑤ 직업재활을 전공한 교사 ⑥ 기타 ()

5. 현재 정신지체학교 직업교육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정신지체학교직업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도> <중도>

- ____, ____ ① 초등부 저학년 (1~3학년)
- ____, ____ ② 초등부 고학년 (4~6학년)
- ____, ____ ③ 중학부
- ____, ____ ④ 고등부
- ____, ____ ⑤ 전공과
- ____, ____ ⑥ 기타 ()

6. 정신지체 직업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내의 시설을 활용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 ② 학교에서는 이론만 가르치고 실습은 산업체 협조를 받아 산업현장에서 가르친다.
- ③ 학교에서는 이론과 가장 기본적인 기술만 실시하고 전문적인 기술은 산업체의 협조를 받아 산업현장에서 실시한다.
- ④ 직업교육에 관한 모든 이론, 실습을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 ⑤ 기타 ()

